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영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시니어의 퇴직이 많아지며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시니어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창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고 있으나 시니어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 환경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창업지원정책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창업의 영향요인으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자 역량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창업자 역량을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의 두 가지 요인을 채택하였고 창업지원정책은 교육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절변수로 멘토링, 종속변수로는 창업의지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인 40대 이상 시니어들로부터 수집한 총 232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의 가설 검증에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은 SPSS 23, 조절효과는 Process 3.4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자금지원의 요인은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역량($\beta=.318$), 자금지원($\beta=.188$), 교육지원($\beta=.152$), 기술적 역량($\beta=.139$)순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역량 및 창의적 역량과 창업의지 간에 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교육지원 및 자금지원과 창업의지 간 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을 위주로 창업의지를 활성화하는 영향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시니어 창업지원정책의 연구와 제도적 보완 그리고 차별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의지에 높은 영향력이 있는 창의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멘토링 기능의 확대방안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주제어: 시니어 창업,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자금지원, 멘토링, 창업의지

I. 서론

1.1 연구배경

정부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9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예산규모는 1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 증가하였으며 지원 유형별로는 사업화(5,130억 원), 연구개발(3,797억 원), 시설공간(1,493억 원), 창업교육(471억 원), 멘토링(221억 원) 및 네트워크(66억 원) 순이며, 사업화가 전체예산의 4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이를 지원대상별로 살펴보면 창·장년, 여성, 장애인 및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야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창업지원정책은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에 치중되어 있어 시니어 창업에 대한 지원

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최양애, 2019).

최근 40대, 50대 시니어들의 퇴직이 많아지며 이들은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시니어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자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은 32.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 29.3%, 30대 이상 21.7%, 60대 이상 13.3%, 20대 이하 3.4% 순으로 나타난다(창업진흥원, 2020). 이러한 지표를 감안하면 청년 창업지원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40대, 50대 시니어 대상으로 차별화된 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창업의지 활성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길대호, 2019; 문성식, 2018), 개인 및 사회적 준비도에 관한 연구(최양애, 2019), 심리적 특성 및 창업역량에 관한 연구(장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youngchoki@naver.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cmheo@hoseo.edu

· 투고일 : 2021-03-08 · 수정일 : 2021-04-07 · 게재확정일 : 2021-04-23

영미, 2019),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정찬영, 2020)가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도 창업환경, 실패부담감, 사회적 규범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오상훈, 2014; 문성식, 2018). 최근의 선행연구를 조사한 바와 같이 시니어 대상의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창업성과와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최근 조사되었다. 김종진(2020)은 외부지원(자금지원, 멘토링지원, 기술개발지원)이 시니어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상정(2016)은 의사결정성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시니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유상정, 2016), 강병승(2020)은 시니어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에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시니어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창업지원정책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멘토링이 이들 관계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둘째, 특히 시니어대상으로 특화된 연구를 실시하여 시니어 창업의지를 활성화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자 역량의 영향요인에 대한 학문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위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창업지원정책의 보완과 프로그램 기획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시니어의 개념

시니어창업은 시니어가 직장 및 사회생활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활용하여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며, 시니어들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생산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며, 동시에 수명연장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 측면에서 개인적인 중요한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문성식, 2018).

시니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급생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 정부기관의 각종 지원대상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시니어 창업가란 이미 창업을 한 50세 이상의 기업가가 아니라, 시니어에 의해 새롭게 창업하는 제2의 경력 창업가를 의미한다(Baucus & Human, 1994).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대상자로 만 40세 이상(예비)창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니어 창업스쿨과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통합한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 장년창업센터의 지원대상자도 40세 이상이다.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 또는 사업 실패로 재 창업 의지를 갖추게 되는 만 40세 이상의 개인이 창업하는 것으로 일컫는다(유상정, 2016).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정의를 만 40세 이상으로 전문성을 겸비한(예비)창업자들로 정의하였다.

2.2 창업역량의 개념

창업가의 역량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여겨지며, 기존 기업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은 창업기업은 조직 내 모든 활동과 자원 등을 대부분 창업가가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이혜영, 2018). 창업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개인의 배경, 직장 및 교육을 통해 획득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보유지식등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양수희 외(2011)는 전략적 사고역량, 창의성 역량, 성취역량, 사회적 역량, 조직적 역량, 기술적 역량, 시장인지 역량으로 구분하여 실증적 연구를 하였고, 이기만(2018)은 창업가의 역량에 기반을 두고, 특정업무에 효과적이거나 높은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 기술에 바탕을 둔 창업가의 창의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기업가정신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장영미, 2019).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창업가 역량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자원을 보면 기업 특유성을 지닌 기업가원으로서 창업가의 창업가적 능력이나 경영능력, 개인적 네트워크 및 과거의 창업 경험 등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 능력 및 사회적 배경 특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였다(Chandler & Hanks, 1994). 이에 임아름(2015)은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시장감지 역량,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성열(2018)은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가의 역량을 여러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자는 서성열(2018)과 임아름(201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자의 역량을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기술적 역량은 제품 및 개발, 생산과 관련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 및 활용하고,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및 활용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창의적 역량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필수적인 창업자의 특성이나 능력으로 아이디어 생산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3 창업지원정책의 개념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축적된 지식 및 간접적인 경험 등을 제공하며, 창업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을 주고 창업을 촉진시키며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김영선, 20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을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고,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영주, 2018; 지효선, 2019).

Gartner & Vesper(1997)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요소는 창업자의 잠재적 특징과 능력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 자금지원, 창업 준비공간 등이 라 하였다.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에게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훈련,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Johnson, 1990). 정부의 창업지원 유형으로는 창업자금 지원 외에도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네트워크 지원,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등이 있다(이희경, 2017). 유상정(2016)은 정부창업지원정책을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경영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영지원만이 창업기업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종류를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마케팅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권명규·양해술(2016) 또한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종류를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마케팅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창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Kierulff, 2005). 박남규 외 (2015)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은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가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실패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비창업자의 심리적인 창업실패부담감을 해소시키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자기효능감 교육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창업가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인 창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단계라고 하였다(박남규 외, 2015). 창업교육의 내용은 아이템의 도출 및 시장검증,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분석, 시장진입을 위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IR전략 등 다양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지원은 예비창업자에게 실패부담감을 줄여주고 자기효능감을 일깨워 창업의지 함양에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은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벤처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2019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지원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사업화 5,130억 원 연구개발 3,797억 원 시설공간 1,493억 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492억 원 그리고 네트워크가 66억 원으로 사업화 지원자금이 전체의 45.9% 를 차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이처럼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자는 창업지원정책의 구성요소로 박남규 외(2015) 다수의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요인으로 교육지원과 자금지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교육지원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고, 자금지원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자금으로 출연, 융자, 투자자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4 멘토링의 개념

멘토링의 개념은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1970년대 후반 들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라는 하버드 대학이 조사, 발간하는 연구 결과에서 성공한 기업가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그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박호호, 2014). “멘토링이란 멘티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멘토와 멘티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Shea, 1995). 멘토링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멘토가 멘티에게 조직의 적응 및 몰입, 직무 만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결과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직무 향상 및 직무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Colley, 2003). 박서영·김성웅(2012)는 멘토링은 멘티가 멘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현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은 통찰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멘토는 본인이 보유하고거나 경험한 정보와 기술들을 제공하는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멘티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장현(2017)은 Kram(1983)의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토대로 Noe(1988)가 연구에서 제시한 멘토링 기능 척도(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 기능, 역할모델 기능)와 창업 멘토링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조직 멘토링 척도로 개발된 Noe(1988)의 멘토링 척도를 창업 멘토링 연구에 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 멘토링의 특성을 반영한 멘토링 척도를 연구하였다. 광동신(2020)은 멘토역량과 기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본 척도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장현(2017)의 연구에서 제기한 창업 멘토링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를 광동신(2020)의 연구에서 적용한 멘토링의 개념을 인용하여, 멘토가 멘티의 창업활동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및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5 창업의지의 개념

창업의지는 실질적인 창업 여부가 아니라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창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Katz & Gartner, 1988). Shapero & Sokol(1982)은 “창업 이벤트 모델”에서 창업의지란 지각된 욕구와 지각된 적성, 행동 성향으로 나누며, 지각된 욕구란 개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매력이라 하였고, 지각된 적성에 대하여는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라 하였으며, 행동 성향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라 하였다(Shapero & Sokol, 1982). 국내 연구에 의하면 홍정표(2015)는 창업의지를 경력지향성 측면에서는 안전지

향성과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을,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서는 창업 멘토, 개인의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을 주요 변수로 제시하였다(홍정표, 2015). 김종운(2014)은 개인의 특성과 경험,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능력, 사회적 평가 등 소위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논하는 3대 요소를 창업의지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잠재적 창업자가 미래에 창업 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안승권(2016)은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의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창업)하고자하는 대학생들의 의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를 미래에 창업 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6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창업자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성열(2018)은 청년 창업자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생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자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창업자 역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검증하였다(조병준, 2020).

노현철(2018)은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금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인프라지원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한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관계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 연구결과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김정곤, 2017). 시니어 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연구가 있었다. 시니어 창업 기업의 사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외부지원(자금지원, 멘토링지원, 기술개발지원)이 창업역량과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김종진, 2020). 또한 의사결정성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시니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세가지 요인 중 경영지원과 교육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으나 자금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유상정, 2016). 시니어의 창업의지와 창업지원정책의 연구는 최근 강병승(2020)의 정부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니어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지만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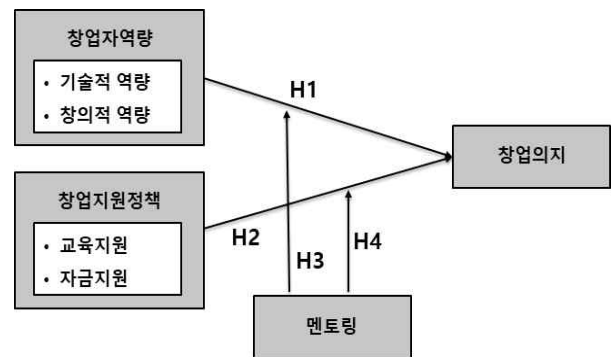
펴보면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 환경적인 요인,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을 주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시니어들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시니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내적요인은 창업자 역량(기술적 역량·창의적 역량)과 외적요인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자금지원)을 채택하고, 조절변수에는 멘토링으로 설정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자역량은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나누었으며, 창업지원정책은 교육지원과 자금지원으로 나누었다. 아울러 멘토링을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창업의지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 그림 1 > 연구의 모형

3.2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정두식(2016)은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원생,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열(2018)은 창업자 역량(기술적 역량·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앞선 연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시니어 창업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1> 연구 변수의 측정항목과 선행연구

변수		측정항목	선행 연구
창업자 역량	기술적 역량	1.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문제 해결능력이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 활용 능력이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 혁신 능력이 있다. 4. 나는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임아름 (2015), 서성열 (2018)
	창의적 역량	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 생각해 낸다. 2. 나는 새로운 생각을 자주 만들어 낸다. 3. 나는 생각이 참신하다는 말을 잘 듣는다. 4. 나는 내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많다. 5.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내만의 방법을 잘 사용한다.	임아름 (2015), 서성열 (2018)
창업지원 정책	교육지원	1. 나는 전문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창업교육을 받으면 창업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3. 나에게 창업교육은 창업 준비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나는 창업교육 후 창업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5. 나에게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실패를 줄여줄 것이다	박남규 외 (2015), 김정곤 (2017)
	자금지원	6. 나는 창업자금지원제도가 창업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창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정부에서 용자로 지원해주는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9. 나는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창업에 관심이 있다. 10. 나는 전문적인 자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남규 외 (2015), 김정곤 (2017)
멘토링		1. 멘토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2. 멘토는 새로운 사고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 멘토는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4. 멘토의 전문적 견해가 나의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곽동신 (2020)
창업의지		1. 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창업을 하고 싶다 2. 나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3.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창업을 하고 싶다, 4. 나는 창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생각한다, 5. 나는 여건이 된다면 꼭 창업을 하고 싶다.	박남규 외 (2015), 서성열 (2018)

H 1-1 : 창업자역량 중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 창업자역량 중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현철(2018)은 정부정책(자금지원·기술지원·경영지원·인프라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회귀분석 결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임교순·전인오(2015)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정책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박남규 외(2015)은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자금지원·마케팅지원)의 세 변수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청년으로 본 연구대상인 시니어들에게도 창업 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 2-1 :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2 : 창업지원정책 중 자금지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용태(2017)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윤인철(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최승호 외(2016)에 의하면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창업 멘토링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이 시니어 창업자역량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시니어들의 창업의지 간에 조절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 3-1 : 멘토링은 창업자역량 중 기술적 역량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H 3-2 : 멘토링은 창업자역량 중 창의적 역량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H 4-1 : 멘토링은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과 창업의지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H 4-2 : 멘토링은 창업지원정책 중 자금지원과 창업의지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창업자역량, 창업지원정책을 조절변수로 멘토링 그리고 종속변수로 창업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인용하였다. 창업자역량은 임아름(2015)과 서성열(2018)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측정하위 요인(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총 10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지원정책은 박남규 외(2015)와 김정곤(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2개의 하위요인(교육지원 및 자금지원)으로 총 10개의 문항을 측정하였다. 멘토링은 광동신(2020)의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4개 문항 그리고 창업의지는 박남규 외(2015)와 서성열(2018)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40대 이상의 시니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총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한 설문지 232개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SPSS 23, Process 3.4를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은 SPSS 23, 조절효과는 Process 3.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3.4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경우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Hayes, 2017). 이 방법은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조사된 데이터로 다시 한 번 오차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조절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장점이 있다(Hayes, 201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 82.3%, 여성 17.7%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4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연령은 40대 43.1%, 50대 50.4%, 60대가 6.5% 참여하였다. 창업분야 경험 기간은 5~10년 미만이 10.3%로 가장 낮고 전혀 없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다. 창업 준비기간은 1~2년 미만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창업진흥원(2020)의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내용 중 창업을 결심한 시점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창업 준비기간이 평균 10.1 개월로 조사된 결과의 유사한 결과이다. 창업 준비자금은 1~3억 원 미만이 36.6%로 가장 높았다. 창업교육과 멘토링 경험은 각각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9%, 48.3%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시니어들은 창업관련분야 경험이 없으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니어의 창업을 지원하기위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91	82.3
	여성	41	17.7
연령	40대	100	43.1
	50대	117	50.4
	60대	15	6.5
직업	전문직	58	25.0
	회사원	129	55.6
	공무원/교직원	3	1.3
	학생	2	.9
	주부	4	1.7
	기타	36	15.5
창업 분야 경험	없음	73	31.5
	5년 미만	41	17.7
	5~10년 미만	24	10.3
	10~15년 미만	31	13.4
	15년 이상	63	27.2
창업 준비 기간	1년 미만	42	18.1
	1~2년 미만	112	48.3
	2~3년 미만	54	23.3
	3~5년 미만	17	7.3
	5년 이상	7	3.0
창업 준비 자금	3,000만원 미만	7	3.0
	3,000~ 5,000만원 미만	32	13.8
	5,000~1억 원 미만	80	34.5
	1~3억 원 미만	85	36.6
	3억 원	28	12.1
창업 교육 경험	없음	125	53.9
	10시간 이하	48	20.7
	20시간 이하	23	9.9
	30시간 이하	5	2.2
	31시간 이상	31	13.4
멘토링 경험	없음	112	48.3
	1~2회	68	29.3
	3~4회	22	9.5
	5~6회	10	4.3
	7회 이상	20	8.6

4.2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표 3> 은 측정항목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판단은 본 연구의 경우 유의 확률 .00에서 KMO값이 .920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5862.308($p=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77.58%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구성요인의 총 29개 문항을 사용하여 요인추출 결과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6개의 요

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및 자금지원, 조절변수인 멘토링 그리고 종속변수인 창업 의지의 6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변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기술적 역량 .929, 창의적 역량 .913, 교육지원 .914, 자금지원 .899, 멘토링 .932, 창업의지 .914등 모두 임계치인 .700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성요소						
	1	2	3	4	5	6	
기술_4	.885	.097	.100	.092	.066	.012	
기술_5	.871	.184	.134	.080	.003	-.012	
기술_1	.819	.268	.100	.166	.073	.063	
기술_2	.793	.319	.176	.085	.149	.145	
기술_3	.759	.365	.210	.030	.087	.055	
창의_2	.205	.849	.213	.130	.054	.096	
창의_1	.252	.842	.160	.148	.056	.005	
창의_3	.220	.827	.180	.041	.030	.089	
창의_4	.263	.757	.177	.067	.125	.131	
창의_5	.208	.667	.207	.184	.220	.076	
창업의지_3	.140	.211	.849	.126	.130	.096	
창업의지_4	.117	.221	.817	.177	.262	.115	
창업의지_1	.111	.168	.802	.158	.144	.135	
창업의지_2	.225	.161	.750	-.004	-.078	.171	
창업의지_5	.151	.269	.699	.236	.342	.099	
교육_4	.128	.112	.183	.788	.288	.258	
교육_3	.119	.131	.220	.784	.304	.226	
교육_2	.088	.156	.231	.782	.305	.214	
교육_1	.104	.226	-.015	.747	.333	.129	
교육_5	.080	.025	.106	.705	.158	.192	
자금_2	.099	.078	.102	.324	.807	.177	
자금_1	.026	.117	.049	.295	.793	.223	
자금_3	.034	.080	.167	.242	.760	.222	
자금_5	.156	.123	.199	.260	.729	.187	
자금_4	.087	.082	.436	.269	.577	.271	
멘토링_3	.030	.048	.136	.235	.182	.865	
멘토링_2	.026	.128	.130	.146	.246	.857	
멘토링_1	.115	.075	.164	.221	.196	.826	
멘토링_4	.037	.106	.137	.250	.207	.820	
설명력(%)	40.23	14.44	7.30	6.03	5.63	3.94	
누적설명력(%)	40.23	54.67	61.97	68.01	73.64	77.58	
신뢰도 Cronbach's α	.929	.913	.914	.899	.932	.914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2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862.308
						자유도	406
						유의확률	.000

측정된 연구변수인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및 자금지원, 창업의지 간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과 같이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0.7미만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충족되었다. 특히 종속변수인 창업 의지에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 지원 및 자금지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변수간 상관계수

	기술	창의	교육	자금	창업
기술	1				
창의	.564**	1			
교육	.310**	.378**	1		
자금	.258**	.325**	.675**	1	
창업	.414**	.515**	.442**	.430**	1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4.3 가설검증

4.3.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F=33.249$, $p=.000$ 으로 유의한 결과이고, 독립변수 간의 VIF값은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자 역량 중 기술적 역량은 p 값이 .032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H1-1은 채택되었다. 창업자 역량 중 창의적 역량은 p 값이 .000으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H1-2는 채택되었다.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은 p 값이 .040으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H2-1은 채택되었다. 창업지원정책 중 자금지원은 p 값이 .009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H2-2는 채택되었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창의적 역량($\beta=.318$), 자금지원($\beta=.188$), 교육지원($\beta=.152$), 기술적 역량($\beta=.139$) 순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창업의지의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공차	VIF
(상수)	-.293	.333		-.879	.380		
기술	.152	.070	.139	2.160	.032	.671	1.491
창의	.400	.083	.318	4.795	.000	.632	1.581
교육	.174	.084	.152	2.067	.040	.513	1.951
자금	.229	.087	.188	2.620	.009	.538	1.857

<표 6> 멘토링의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coeff	t	LLCI	ULCI	통계량	결과
H3-1	기술역량 → 창업의지	상수	0.489	1.213	-0.306	1.284	△R ² =.011 F=4.318 p=.039	채택
		기술역량	-0.014	-0.132	-0.221	0.193		
		멘토링	-0.524	-1.18	-1.4	0.351		
		상호작용	0.25	2.078	0.013	0.488		
H3-2	창의역량 → 창업의지	상수	0.631	1.542	-0.175	1.437	△R ² =.017 F=6.624 p=.011	채택
		창의역량	0.16	1.414	-0.063	0.383		
		멘토링	-0.92	-1.792	-1.931	0.091		
		상호작용	0.354	2.574	0.083	0.625		
H4-1	교육지원 → 창업의지	상수	0.348	0.889	-0.423	1.118	△R ² =.0007 F=2.644 p=.105	기각
		교육지원	0.028	0.282	-0.169	0.226		
		멘토링	-0.534	-0.942	-1.651	0.583		
		상호작용	0.217	1.626	-0.046	0.479		
H4-2	자금지원 → 창업의지	상수	0.059	0.151	-0.715	0.834	△R ² =.00 F=0.021 p=.886	기각
		자금지원	0.186	1.876	-0.009	0.382		
		멘토링	0.281	0.449	-0.954	1.517		
		상호작용	0.02	0.143	-0.26	0.3		

종속변수 : 창업의지, F=33.249, p=.000, adj R²=.358

4.3.1 멘토링의 조절효과 검증

멘토링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Hayes교수가 개발한 Process 3.4를 활용하여 신뢰구간 추정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창업자역량 중 기술적 역량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의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았고, R²값이 1.1% 증가하였을 때 F=4.318, P=.0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멘토링을 투입하여 기술적 역량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H3-1은 채택되었다.

둘째, 창업자역량 중 창의적 역량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의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며, R²가 1.17% 증가할 때 F=6.624, p=.011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멘토링을 투입하여 창의적 역량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3-2는 채택되었다. 반면에 창업지원정책의 교육지원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의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고, R²가 0.7% 증가할 때 F=2.644, p=.105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지원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의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고, p=.886으로 조절효과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H4-1, H4-2는 기각되었다.

4.4 가설검증에 대한 논의

첫째 시니어 창업자 역량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창업자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서성열, 2018; 장영미, 2019; 강병승, 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연구결과 시니어 창업자 역량의 영향관계는 창의적 역량(β=.318)이 기술적 역량(β=.139)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자의 창의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창업지원정책은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중 창업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연구한 내용(유상정, 2016; 장영미, 2019)과 창업지원정책을 정부와 가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연구한(강병승, 2020)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청년 창업자 대상의 창업연구가 활발하지만 시니어 대상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창업자역량과 창업의지간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창업자의 역량은 개인적 특성 상으로 멘토링이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고 추정할 수 있겠으나 제도적인 측면의 창업지원정책에는 멘토링의 기능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창업지원정책을 지지하는 영향요인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 역량 중에서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창업자 역량 중에서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두 가지 가설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인 청년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관한 영향(서성열, 201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셋째, 창업지원정책 중에서 교육지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창업지원정책 중에서 자금지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두 가지 가설에 대한 연구결과는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노현철, 2018)의 검증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역량(기술적 역량·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와 관계에서 멘토링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간에서는 멘토링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김용태(2017), 윤인철(2017), 최승호 외(2016)가 연구한 멘토링과 창업의지간의 존재되어 나타난 연구결과를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결과를 통해 창업역량이 높은 시니어들의 경우 멘토링 경험 후 창업의지가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5.2 시사점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 청년 혹은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시니어 대상으로는 실증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시니어 대상의 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각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노현철(2018)의 청년창업자 대상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시니어 대상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속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 변수를 시니어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시니어 창업가 역량인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성열(2018)은 청년이 창업역량을 보유했을 때 창업에 대한 의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규명한 것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멘토링을 조절 변수로 채택하여 창업의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창업자 역량과 창업의지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사회 경험이 많고 창업역량이 높은 시니어들에게도 멘토링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이론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반면 창업지원정책 창업의지와 관계에서는 멘토링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육지원과 자금지원 시 멘토링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멘토링의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가설검증에 투입된 4개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창의적 역량($\beta=0.318$), 자금지원($\beta=0.188$), 교육지원($\beta=0.152$), 기술적 역량($\beta=0.139$) 순으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창의적 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시니어 대상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겠다.

둘째, 멘토링이 시니어들의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켜 창업의지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니어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여 창업의지를 활성화하도록 시니어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언한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사회적인 특수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창업에 대한 실패 부담감으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부정적인 응답하였을 수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

둘째, 최근 들어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연구대상의 분포 중에 60대 이상(6.5%)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대(43.1%)와 50대(50.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60대 이상 정년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진행되어 시니어 대상으로 적합하고 신뢰도가 높은 척도의 설문지 설계가 필요하여 추후 척도개발에 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시니어 대상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가 가각된 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를 통한 재검증과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간 관계를 활성화 하는 조절변수를 충분히 반영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 효능감, 기회 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곽동신(2020). *멘토역량 및 멘토링 기능이 다차원 신뢰와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권명규·양혜술(2016).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실패 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21-37.

길대호(2019). 시니어세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43-255.

김영선(2015).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나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김정곤(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창업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효과와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동기 및 창업 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김종진(2020). *시니어창업 기업의 사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노현철(2018).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문성식(2018).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연구, *벤처창업연구*, 10(6), 89-98.

박서영·김성웅(2012). 멘토의 자기효능감이 멘토링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코디네이터 역할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6), 129-147.

박용호(2014). *창업멘토링이 창업 및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성열(2018). *청년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오상훈(2014). *청장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양수희·김명숙·정화영(201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3.

유상정(2016). *의사결정성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시니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윤인철(2017).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멘토링과 교육만족,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 8(6), 265-273.

이기만(2018).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 준비성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창업의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이영주(2018). *창업가가 인식한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이혜영(2018). 초기 및 후기 기술창업기업 창업가의 역량 모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99-116.

이희경(2017).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임교순·전인오(2015).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5(11), 422-432.

임아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장영미(2019). *시니어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두식(2016). 창업가 특성 및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9(4), 1565-1586.

정찬영(2020). 시니어 대상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69-81.

조병준(2020). 학생창업자의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엔젤투자자의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0(1), 149-162.

조장현(2017). 창업 멘토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벤처창업연구*, 12(5), 67-77.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보도 자료*, Retrieved(2021. 02.01) from <https://korea.kr/>.

지효선(2019).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정책이 기회 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과 창업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창업진흥원(2020). *2019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Retrieved(2021. 02.01) from <https://www.kised.or.kr/>.

최양애(2019). 시니어의 개인 및 사회적 준비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6(3), 91-109.

최승호·원성권·한성수(2016). 대학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릉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인력연구*, 20(4), 185-201.

홍정표(2015).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Ahn, S. K.(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 Chung-Ang University.
- Baucus, D. A., & Human, S. E.(1994). Second Career Entrepreneurs : A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rocesses and Antecedent Variabl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2), 41-71.
- Chandler, G. N., & Hanks S. H.(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 Chang, Y. M.(2019). *The Effects of Senior'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Cho, B. J.(2020).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Angel Inves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Depending on Capabilities of Student Entrepreneurs,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20(1), 149-162.
- Cho, J. H.(201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Mentoring Scal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2(5), 67-77.
- Choi, S. H, Won, S. K., & Han, S. S.(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Gangneung area,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0(4), 185-201.
- Choi, Y. A.(2019). The Impact of Personal and Social Preparation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6(3), 91-109.
- Chung, C. Y.(202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Senior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Integra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5(4), 69-81.
- Colley, H.(2003). Engagement Mentoring for Socially Excluded Youth : Problematising an 'Holistic' Approach to Creating Employ Ability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Habitu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1(1), 77-99.
- Gartner, W. B., & Vesper, K. H.(1997). Measuring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5), 403-421.
- Hayes, A. F.(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ublications
- Hong, J. P.(2015). *A study on the Start-Up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Ji, H. S.(2019).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for Pre-entrepreneurs on the Recognition and Assessment of Opportunities :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Motivation*,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39-54.
- Jung, D. S.(2016). An Empe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 Focu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Orientation,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9(4), 1565-1586.
- Kang, B. S.(2020). *Impacts of Seniors' Entrepreneur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Opportunity Awareness, and Startu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Katz, J., & Gartner, W. B.(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ierulff, H. E.(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oland: Findings from the fiel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15(1), 93-98.
- Kil, D. H.(2019). The Effects of Senior Generation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43-255.
- Kim, J. G.(2017).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ng in the Venture Contest :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Kim, J. J.(2020).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enior Entrepreneurship Business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Kim, J. U.(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University Students' Will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the motivation of start-ups and the timing of start-up plans. *Venture start-up research*, 9(1), 79-87.
- Kim, Y. S.(2015). *TheEffectsofPotentialEntrepreneurs'Personal CharacteristicandEnvironmentFactor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Y. T.(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13-20.
- Kram, K. E.(1983).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 Kwak, D. S.(2020). *Effects of Mentor Capabilities and Mentoring Functions on Multi-Dimensional Trus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 Kwon, M. H., & Yang, H. S.(2016).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fusion of industries :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self-efficacy,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4(5), 21-37.
- Lee, G. M.(2018).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Startup Preparedness on Business Continuity*,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 Lee, H. K.(201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technology-based start-up enterprises :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Lee, H. Y.(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y Model in Early-and Late-Stage Technology-Based

- Ventures,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3(4), 99-116.
- Lee, Y. J.(2018). *An Impact of Entrepreneurs' Perceived Satisfaction with Start-up Assistance Project on Start ups' Management Performance*, Master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 Lim, A. R.(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Lim, G. S., & Jeon, I. O.(2015). A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otential Found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422-432.
- Moon, S. S.(2018).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on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Noe, R. A.(1988). An Investigation of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Assigned Mentoring Relationships, *Personal Psychology*, 41(3), 457-479.
- Noh, H. C.(2018).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and the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n their will to start a business : Focusing on the adjustment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 Oh, S. H.(2014).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Start up Environment on Young Adult and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Focusing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Park, N. G., Kim, M. S., & Ko, J. W.(2015).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0(6), 89-98.
- Park, S. Y., & Kim, S. W.(2012). The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of Mentor and Satisfaction of Mentoring Program :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 of Coordinator Rol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9(6), 129-147.
- Park, Y. H.(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Mentoring on the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Performa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Ryu, S. J.(2016). *The Influence of Decision-Making Tendencies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ies on Senior Entrepreneurial Succes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Seo, S. R.(2018). *Influence of Youth's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72-90
- Shea, G.(1995). Can a supervisor mentor?: Mentoring begins and ends with you. *Supervision*, 56, 3-3.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9). *2019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Integrated Announcement Press Release*, Retrieved(2021. 02.01) from <https://korea.kr/>.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20). *2019 Startup Companies Survey*, Retrieved(2021.02.01.) from <https://www.kised.or.kr/>.
- Yang, S. Y., Kim, M. S., & Jung, H. Y.(2011).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Start-ups on Management Performanc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23.
- Yoon, I. C.(2017). Effect on startup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265-273.

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Young Tae Kim*

Chul Moo Heo**

Abstract

With the recent increase in senior retirement, and senior start-ups are becoming more active due to high interest in start-ups. Research on young entrepreneurship, including college student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most of the preceding research on senior entrepreneurship was conducted mainly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re were not many empirical studie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In this study,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as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nior entrepreneurship.

As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the founder's competency was adopted as two factors: technical competence and creative competency, and the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was divided into education support and funding support. Mentoring was set as a controlling variabl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 total of 232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seniors in their 40s or older were empirically analyzed.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e study, SPSS 23 was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3.4 was used for moderation effe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e, educational support, and funding a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will of entrepreneurship. It was found that creative competency($\beta=.318$), funding support($\beta=.188$), educational support($\beta=.152$), and technical competence($\beta=.139$), in this order, influence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was significant between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between educational support, funding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no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senior start-up support policie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differentiated start-up support programs by studying the factors of senior start-up capabilities and start-up support policies. It is also believ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search for ways to increase creative capabilities that have a high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and the expansion of mentoring functions.

KeyWords: Senior Entrepreneurship,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y, educational support, funding support, mentoring, intentions of business start up

* First Author,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younghoki@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cmheo@hoseo.edu